

##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레스터 써로우

비록 강연제목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수개월전 본인이 이를 준비할 때는 오늘 아침 실제로 말하는 내용과는 다른 것을 발표하고자 하였다. 오늘 본인은 달러화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새로운 경제시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달러화의 가치하락을 보면 한편으로 이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만약 1,400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와 1,6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가진 국가가 있다면 이 국가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여러분은 기대하는가? 단순한 경제분석만으로도 그 국가의 통화가치는 하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놀라운 것은 미국이 지난 15년간이나 이러한 무역적자를 지속해 오면서도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문제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가 40,000에 달하여 주가/수익비율이 100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했을 때와 비슷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처음 5~6년간 본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것은 년센스다. 일본 주식시장은 곧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현상이 그 후로도 3~4년간 지속되면서 본인과 같이 말했던 사람들은 당황하여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다.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었으나 다만 말하지 않았다.

이 때 다른 부류의 경제학자들은 일본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어떤 이유로 40,000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온갖 종류의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토지가격이 일본의 회계장부상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였고, 일부는 일본인들은 그 회계방법이 다르다거나, 일본사람들은 단순히 돈 버는 일에 흥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등 여러가지 주장을 하였다. 여러분은 왜 일본경제가 기존의 경제이

론을 부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이유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일본 주식시장은 니케이(日經)지수가 40,000에서 12,000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하락폭은 1929~1932년의 대공황기간 중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하락폭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왜 일본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매우 쉽게 대답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주가하락과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富의 손실, 그리고 엔화기준시 해외투자에서의 일본의 손실을 고려한다면, 일본인들은 최근 6년간 약 6~7조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약 6~7조 달러의 손실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수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물론 여러분이 달러화 가치와 미국의 무역적자를 관찰한다면, 이는 니케이지수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처음 6~7년동안 본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것은 년센스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 갈 수 없으므로, 끝나는 시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5년후에 우리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고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하였다.

이제 다른 경제학자들은 왜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돈을 달러로 환수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① 이 나라의 시장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자금도 미국시장으로 모여들 것이며, ② 미국인들은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에 관심이 없고, ③ 그들은 자국의 부를 늘리는 데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년센스이다. 우리는 어느 국가도 무역적자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인 사실로 알고 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건 가장 큰 나라이건 차이가 없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가들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경제학이 기본적인 힘과 작용들에 관해서만 설명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학은 시간적 측면에서는 효험이 없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시기를 경제이론이 말해줄 수는 없다. 만일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또는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점이다. 그 시점을 알지 못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없다. 이러한 분야가 곧 사업가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금융업자들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야이다. 사업가들은 경제학자들이 말해줄 수 없는 시점을 알고자 하며, 경제학자들은 사업가들이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는 힘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이제 통화가치를 보는 두가지 관점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통화가치를 보는 한가지 관점은 그 국가의 국제수지가 균형인가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이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룰 때까지 달러화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오늘 달러당 80엔이라면 장래에 70엔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선 장래란, 본인도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하루 후, 2년 후 또는 심지어는 15년 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를 보는 다른 관점이 있다. 그것은 구매력이다. 구매력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상품의 양국간 가격차이가 수송비와 같다면 국제수지는 균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달러화의 가치는 대체로 저평가되었다. 미국에서는 도요다차를 일본국내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의 약 절반가격에 살 수 있다. 일본산 카메라의 미국내 가격은 동일한 카메라의 일본 국내가격의 약 1/3 수준이다. 이 방안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전화로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수송한다면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현실이 교과서에서 말한 그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방을 나가서 본인이 지금 설명한 그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 세상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력지수만을 보면 달러당 225엔은 되어야 하지만 오늘 아침 현재 달러당 약 80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80과 225의 차이는 작용해야 할 무엇인가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인은 무엇이 현재 작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작용한다면 어떻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환태평양지역에서의 무역패턴을 살펴보면 지금 지진과 같이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 진짜 지진과 같이 아무도 그것이 언제 발생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환태평양지역의 모든 국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까? 그 국가들은 대미무역에서의 흑자로 대일무역에서의 커다란 적자를 보충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얻지 못한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그들의 대일무역은 중단될 것이다. 여러분의 이웃인 중국은 대미무역에서 5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하여 쓰고 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상품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중국이 미국인에게 상품을 팔지 못하면 중국은 결과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은 미국에 상품을 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에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환태평양지역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만일 여러분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금융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환태평양지역의 무역거래가 전날밤에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날 아침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여기에서 말하는 내일이 바로 내일인지, 5년후인지 또는 어제였던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달러화의 가치하락현상에 대하여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 “이것이 끝인가? 이러한 현상은 멕시코의 위기와 비슷한 것인가?”

국제통화가치에 대하여 흥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을 때, 본인이 아닌 단 한사람을 제외한 모든 경제학자들이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은 매일 매일 소폭의 등락을 거치며 통화가치는 기본적인 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고정환율제도에서 볼 수 있었던 대폭적인 등락현상은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 그리고 본인은 이를 믿었으며

아마 여러분들도 믿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믿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은 대공황기간의 경제사를 전공한 미국경제학자인 찰스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였다.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이후 통화가치는 대폭적인 상승과 하락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는 옳았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러한 등락이 발생했는가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이론상 3~5년을 투자기간으로 고려하여 생산성과 물가수준을 관찰하고, 장부상 손해를 보더라도 3~5년짜리 투기를 하는 경제투자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금융시장에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금융투자자들은 최대한 하루의 투자기간을 가질 뿐 3~5년을 투자기간으로 생각하는 금융투자자는 없다. 이것은 현대의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자금도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 있는 베어링스社의 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 28세에 280억 달러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20억 달러를 손해본 대학졸업자도 아닌 한 사람. 그가 지금부터 수년후에 일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현실은 매우 불안정한 세계를 만들었다. 멕시코의 경우를 보자. 6년 전이 아니라 불과 6개월 전에 사람들이 멕시코에 대해서 무언이라고 말했던가를 생각해 보자. 모두들 멕시코는 잘하고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균형예산을 운영하였고, 1,0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을 매각하였으며, 경제적 규제완화조치를 취했고, 수입제한을 철폐하였다. 살리나스 당시 대통령은 모든 잡지의 표지인물이었고 제3세계의 영웅이었다. 멕시코경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1994년 여름에 말한 사람을 본인은 본 적이 없었다. 폐소화가 다소 고평가되었으며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이들 역시 멕시코경제가 최선의 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6개월 후 현실로 드러난 것은 살리나스는 해외피신중이고 멕시코경제는 무너졌다. 멕시코인의 3/4은 실직위기에 처해 있다. 멕시코는 가구당 평균 30%의 구매력 감소가 예상되며 중산층 가구는 약 50%의 구매력 감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멕시코의 모든 사업체들은 파산위기인데, 이는 페

소화 기준으로 사업상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달러화로 빌린 돈을 이제는 그 3배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일이 멕시코 정부당국의 서투른 평가절하조치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그러한 서투른 평가절하조치는 멕시코의 위기와는 전혀 또는 거의 상관없는 것이다.

멕시코위기를 분석하려면 1992년 여름의 유럽을 보아야 한다. 1992년 여름 유럽국가들은 유럽환율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EC 국민들은 자국통화 가치를 독일 마르크화에 연동시키고자 하였다. 투기자들은 먼저 이탈리아의 리라화를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긴축정책을 쓰고 그리고 평가절하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리라화 가치를 마르크화에 연동시키기 위한 기초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생산성 증가속도는 독일보다 느리고, 물가상승률은 독일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기자들은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략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우리는 또다시 영국이 기초적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동일한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 투기자들은 이어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인 프랑스를 공략하였다. 1992년 여름 프랑스는 높은 생산성증가율, 낮은 물가상승률, 더 나은 재정운용실적, 그리고 양호한 무역수지 등 독일보다 양호한 기초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들은 프랑화를 공략하였고 그리고 이겼다. 그들은 프랑스가 이자율을 인상하고, 프랑의 평가절하와 긴축정책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투기자들이 기초적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그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인들은 자본시장을 개방치 않음으로써 이러한 투기자들의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일본은 도쿄에서 니케이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금지시키려 하여 이를 실시했다. 그 결과 파생상품은 어디에서 거래되었는가? 싱가포르이다. 이것이 바로 베어링스社의 그 직원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던 것이다. 한국정부의 허가없이도 한국주식시

장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세계의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동물적인 심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일단의 양의 무리가 있고 그 중 일부가 사자를 보고서 도망치기 시작하면, 그 무리 전체가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때로는 미풍이 불어와 털을 건드리는 경우에도 사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달릴 수 있다. 문제의 진실은 어느 누구도 금융투자자들의 공격을 받게 될 다음 국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춘'誌는 공격대상의 가능성이 큰 국가명단을 발간하였는데, 이것은 이 국가들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가장 작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시아에서는 2개국인 그 명단에 있는데 이 두 국가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다.

이제 미국인의 관점에서 달러화를 생각해 보자. 우리 미국인들이 달러화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수출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1,3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와 1,43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가진 일본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수출을 늘림으로써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었다면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가 그 1,3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자신의 적자로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다. 미국은 일본 흑자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지구상의 누가 이를 대신할 것인가? 만일 그 대답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지불할 수 없다면, 미국의 직접적인 대일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한 미국이 수출을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미국은 수입을 줄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입대체상품들을 자국소비를 위하여 생산하기 시작하면 거의 아무 것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총생산의 약 8%를 수입한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은 기꺼이 생산시설을 늘리고 일본차를 몰아내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은 경기침체에 빠질 뿐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미국이 수입을 줄임으로써

없어지게 될 1,450억 달러를 위하여 산업을 건설해 왔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산업시설은 폐물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세번째 가능성은 미국이 이자율 인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달러 보유를 약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럽인들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유럽인들이 달러화의 가치하락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유럽의 '에어버스'사업을 중단시켰다. 현재 미국이 약간의 대유럽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현재의 달러가치에서 '에어버스'를 대규모의 보조금없이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현재의 달러화 가치수준에서 만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미국이 대규모의 대유럽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유럽이 누군가가 지불해야 할 일본의 1,300억 달러상당의 흑자를 감당해야 한다.

또다른 문제로는 미국경제가 국내적으로 매우 독특하다는 점이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무엇인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세 집단이 있다.

첫째는 멕시코의 경우와 같이 외화표시채무가 많은 기업과 은행들인데 이들은 만약 정부가 통화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파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통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하게 된다. 멕시코의 모든 은행은 파산상태이다. 그들은 10억 달러를 빌려서 이것을 30억 페소로 빌려주었다. 그들이 30억 페소를 회수했을 때, 그들은 갚을 수조차 없는 금액인 70억 페소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누구도 달러이외에는 빌리지 않는다.

한 국가가 통화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두번째 이유는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상승이 대체로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최근 10년간 무역량에 가중치를 주어 계산할 때 달러화의 실질가치는 43% 하락했다. 동 기간중 미국내 물가상승률은 31%였다. 여러분은 이 기간동안 미국의 수입품가격이 어떻게 변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10% 상승했을 뿐이다. 달러화의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품



가격은 오히려 물가를 억제하였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은 엔화의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도요다차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는 바, 이것은 만약 가격을 인상하면 하룻밤 사이에 200만대의 자동차 매출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처리곤란한 생산요소들과 피고용인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마다 손해를 보고 있으나 500달러를 손해보는 것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6,000달러를 손해보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이 일본이 선택한 대안이다. 따라서 달러화 가치하락이 미국의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내의 유권자는 없다. 미국시장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

다른 나라들이 물가상승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세번째 이유는 다수의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며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해변에 갈 수 없다고 불평을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도 미국은 특별한 곳이다. 본인과 같은 일부 이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다. 미국은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여권이 없으면 오늘날에도 멕시코나 캐나다를 여행할 수 없다. 여러분은 2억 6천만의 미국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 답은 9%, 즉 11명중 1명이다. 11명중 10명의 미국인은 태어나서 멕시코나 캐나다조차 가보지 못하고, 미국땅을 떠나지 못해본 채 죽는다. 미국인들은 북극지방을 가고 싶으면 알래스카로, 열대지역을 가고 싶으면 플로리다나 버진 아일랜드로, 스키를 타고 싶으면 콜로라도로 간다. 또한 해변에 가고 싶으면 케이프 코드로 간다. 그리고 본인은 한번도 읽은 적이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인구 2~3백만의 도시인 캔자스市的 신문에서 달러화 가치하락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비즈니스 분야의 뒷장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나는 많은 돈을 걸 수 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의 첫장이나 비즈니스 분야의 첫장에서는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달러화 가치하락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아무런 정치적 집단이 없는 이런 여건속에서 어떻게 클린

턴 대통령이 고통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물론 문제는 달러화의 폭락이 제2차대전 이후의 국제무역체제를 깨뜨리는 마지막 일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대한 금액의 달러화가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3개월동안에 만약 다른 통화를 보유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점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고 팔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 흥미있는 사실은 그것은 미국보다는 다른 국가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것은 환태평양지역의 무역을 중단시킬 것이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일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재앙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국적 관점이란 사실 전후체제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체제를 창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후체제란 GATT와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한 무역체제이다. 이제 1944년 뉴햄프셔의 브레튼우즈를 상상해 보자. 제2차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연합국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제2차대전 이후를 위한 두가지 큰 회의중 첫번째 것으로서, 주요의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어떻게 세계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였다. 만약 여러분이 브레튼우즈에 참석한 대표중 한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마도 여러분 역시 그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정세를 살펴보고, 대공황과 제2차대전으로 완전히 파괴된 세계경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2차대전이 끝나던 날 세계총생산의 75%는 미국에 있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세계경제라는 것은 곧 미국경제였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세계총생산의 50%가 미국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의 부유하고 풍부한 우월지역이 있었으며, 세계경제는 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부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미국은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만약 금융위기가 있다면 이를 중지시키는 것도 미국의 일이었다. 왜냐하면 달러화가 있는 한 금융위기는 없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위기에 관하여 흥미있는 것은, 적어도 멕시코 위기까지는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그 나라를 지지한다고 선언만 하더라도 그 위기는 즉시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기가 없어지기는 커녕 멕시코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부담이 달러화 가치하락의 한가지 이유라고 말한다.

문제는 우리가 다극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자기기의 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이지만, 금융위기라는 점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다. 금융위기라는 것은 누가 세계경제라든가 전자기기를 발명하기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오늘날의 금융위기는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이다.

나는 세가지 면에서 GATT-브레튼우즈 체제가 죽은 것이라 주장한다. 첫째, 현재의 체제는 앞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할 새로운 세계경제를 설계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우월한 경제력이나 주체, 또는 경제력의 조합이 없다는 점에서 죽은 체제이다. UR협상에서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무역기구(WTO)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다. 만일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WTO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도록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WTO는 자메이카가 미국과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1국1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130개 국가들의 1국1표주의로는 세계경제의 규칙을 만들기는 커녕 탁구시합의 규칙조차도 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의 규칙은 이미 없어졌다.

사람들은 외교적인 면에서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다. UR협상을 보면 협상은 제네바에서, 그리고 서명은 마라케시에서 하였는데,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GATT의 기본원칙은 최혜국대우(MFN)원칙이다. 이것이 GATT의 핵심이다. 이를 없앤다면 GATT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최혜국대우원칙이란 자국이 가장 혜택을 주는 무역상대국에 주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권리를 회원국 모두

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독일이 프랑스에 주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에 주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권리를 브라질에 주지 않고 있다.

세계는 지역별 무역블록화하고 있는데, 이는 GATT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세계은행과 IMF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GATT가 존재함으로써 없었을 경우보다 세계경제규모를 약 2,740억 달러정도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도 얼핏 보기에는 이 2,740억 달러가 매우 큰 것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분모, 즉 세계총생산은 얼마나 큰가? 세계총생산은 대체로 30조 달러 이상이다. 따라서 GATT협정으로 인한 세계총생산의 증가효과는 9년동안 1%이하이다. 매년 1%의 1/9이하이다. 그것은 반올림으로 인한 실수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추정조차 할 수 없다. 만일 GATT가 긍정적인 효과를 갖더라도 그 효과가 그렇게 작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 달러화 가치하락과 관련된 본인의 마지막 논제인 새로운 경제체제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때로는 '사슴과 비단뱀'의 문제라고 한다. 비단뱀이 사슴을 통째로 삼키고 잠이 들었다. 비단뱀에게는 커다란 돌출부위가 있으며 그 돌출부위는 비단뱀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점차 작아진다. 그 돌출부위가 뒤로 움직이면서 완전히 소화되면 비단뱀은 깨어나서 새로운 사슴을 찾기 시작한다. 때때로 비단뱀은 기름통과 같이 소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삼키기도 한다. 비단뱀은 잠이 들지만 매우 아프게 된다. 이 경우의 기름통은 일본이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들어 문제를 설명해 보자. 만약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어떤 나라 또는 나라들이 1,300억 달러라는 일본의 흑자에 상응하는 1,3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도, 미국도 아니고, 어느 나라가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는 곧 세계경제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 관련된 문제는 일련의 통계수치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는 국내총생산의 17%가 외국인 소유기업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즉, 외국인들이 미국내 생산시설의 17%를 소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외국인 소유기업이 국내총생산의 24%를 생산하고 있다. 여러분은 일본 국민총생산의 얼마정도가 외국인 소유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 대답은 0.5%이며, 그 중 절반을 일본 IBM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0에 가깝다. 일본 IBM 이외에는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소유기업은 실제로 거의 없다.

만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자국내에서 외국기업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세계경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엔화 가치가 얼마나 올라야 일본이 자신의 경제체질을 변경할 것이냐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나에게 질문하였다. “달러당 100엔 입니까, 또는 80엔 입니까?” 본인의 대답은 0이었다. 엔화 가치가 무한정으로 올라야 일본인들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때까지는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는 각국 대사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설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무역형태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환태평양지역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본도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것처럼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가? 미국 입장에서서는 비록 문제해결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에 불과하더라도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클린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한다면 이를 진짜로 좋아할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의하고자 한다.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시장을 변화시키고 일본시장 일부를 개방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은 충분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하지도 못하며, 둘째, 미국인은 일본에서 투표를 할 수도 없고 정치적 영향력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본인이 제시하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자신의 규칙을 공표하는 것이다. 세계무역에 관한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균형된 다자간 세계에서 일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면 미국은 약 100억 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자재 수출국이고 대유럽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적정한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수입면허표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 면허표를 사지 않고는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다. 미국은 매년 전년도의 수출액보다 100억 달러가 많은 수입면허표를 경매를 통하여 일본에 판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은 일본측에 넘어간다. 일본도 1,000억 달러를 수입하는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어치를 사면 1,100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호주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GAT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일본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생물학적 용어를 빌려야 할 때이다. 본인이 생물학에서 빌린 것 중 하나는 '중단된 균형'의 기간이다. 왜냐하면 진화란 대체로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가장 적응을 잘하는 종족의 지배는 점점 더 강력해진다. 그러나 때때로 생물학에서는 무언가 급격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중단된 균형'의 시기라 한다. 공룡들이 멸종되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물론 가장 좋은 예는 200만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공룡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모든 공룡은 100만년도 못되어 멸종되었고 포유류가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새로운 시합이 시작되었다. 중단된 균형의 시기는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기도 하다. 만약 여러분이 공룡의 입장이라면 비관적일 것이며, 만약 포유류의 입장이라면 낙관적일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는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합이 전개될 것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본인은 우리가 달러화의 가치하락과 함께 보고 있는 현상들이 중단된 균형의 시기에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합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외교적인 면에서 옳은 일은 전세계가 또 다른 브레튼우즈회의를 갖고 이러한 다극화된 세계에 적합한 새로운 일련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야말로 세계가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다. 세계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세계경제는 이 규칙제정자를 위하여 멈추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는 규칙이 전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규칙이 분명하지 않은 시합을 어떻게 치루어 나가느냐 하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 토 론

### 질의 토마스 해리스대사 (주한 영국대사)

썸로우 교수가 언급한 대사 중 한 사람으로서, 썸로우 교수의 WTO 관련 발언에 자극을 받았다. 왜냐하면 본인은 두가지 면에서 잘못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WTO가 1국1표주의에 의거 운영된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GATT 역시 처음 창설된 때부터 실제로 운영되어 온 것은 그 규정과 다르다. 잘 아다시피, 모든 GATT협상들은 담배연기 자욱한 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세 주체 - EU, 미국 그리고 일본 - 에 의하여 완결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프랑스가 미국에 비하여 독일시장에의 접근이 쉽다는 점이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브레튼우즈협

정과 GATT협정은 출범 당시부터 ‘관세동맹’이라는 것을 포용하고 있었다. 브레튼우즈협정의 다른 주요 상대방은 영국이었으며 영국대표는 국제기구가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동맹을 직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역적인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반적인 성공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 **응답**    씨로우 교수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가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분명한 점은 세계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 또한 규정상 그러한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예외들은 최종목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공동시장에 대한 영국의 해석이 정확하다면, 유럽공동시장은 기술적으로는 규칙위반이다. 만약 유럽이 진정 국가연합이 되고자 한다면 공동시장은 기술적으로 규칙위반이 아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참가자가 비록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위반하기 시작하면 그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살펴보다라도 공동시장이라든가 자유무역지대이상의 경제통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일단 그러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 국가들은 더 이상 같은 차원에서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 하자 유무에 관계없이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교관이 취하는 전형적인 실례이다. 법적으로 옳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하는 해리스 대사의 견해가 법적으로 옳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의 말이 경제적으로 옳다는 것도 분명하다.

### **질의**    한스 그뤼넬대사 (주한 스웨덴대사)

씨로우 교수의 구소련과 그 전망에 관한 견해를 듣고자 한다.



## 응답 씨로우 교수

러시아와 동구제국은 잘못하고 있는 반면, 잘 해 나가고 있는 공산중국이 바로 이웃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특히 흥미있는 질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막 전환기를 맞아 그 전망이 밝은 체코공화국과 같은 중부유럽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교해 보자. 러시아의 경제적 실패와 중국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세가지 유리한 점을 중국은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가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는 정부가 무너졌다. 마치 옐친대통령의 정부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또 말하지만 아무도 옐친의 포고령을 따르지 않고 아무런 일관성도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정부가 아니다. 정책을 결정, 선택, 집행하는 정부가 없다는 것으로써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민영화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공산국가에서 누가 자신들의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겠는가? 첫날 여러분은 자기소득의 30~40%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고서 그 허름한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잘한 결정일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장 바보같은 결정일 것이다. 한편 만일 여러분이 자본주의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개인주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당국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집을 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법을 강제하고 있다. 얼마 전 나는 일단의 중국외교관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아파트를 구입토록 강요받고 있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계산으로는 잘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비의 1/3 수준에 아파트를 매입하였으나, 이는 단기적으로 그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렸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정부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선택하고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온갖 종류의 실례이다.

두번째 유리한 점은, 말하자면 서유럽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비추어지

는 것이다. 화교들이 중국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서유럽이 동유럽에 대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공산주의식 기업을 운영했다고 하여 그 사람을 기업가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사람은 경제군대의 대령으로서 북경이나 모스크바에서 수립된 중앙계획에 따라 명령을 받을 뿐이다. 공산당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과 돈을 보낸다. 그들은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할 뿐 거기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그는 단순히 군대의 대령에 불과하다. 본인은 한국이나 스웨덴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육군대령을 기업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다. 중국은 육군대령 대신 화교로 대체하였다. 여러분이 광둥성의 초기 공장들을 둘러보면 모든 공장의 지배인들이 해외에서 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들은 시합을 알고, 어떻게 시합을 해야 하는가를 내국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한국인들이 중국의 북부지방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공장지배인과 같은 준내부역할을 맡을 수 있고, 맡아 일하는 외부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중국은 화교를 통하여 이를 가지고 있으나, 동유럽과 러시아는 서유럽으로부터 이를 얻지 못했다.

세번째는 역사상 사건이다. 그것은 국가경제를 건설한 두 사람의 사고방식과 관련된 사건이다. 본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스탈린은 어디에서 경제를 배웠을까?” 스탈린은 1920년대 포드자동차회사의 델로즈공장에서 경제를 배웠다는 것이 그 대답이다.

1920년대 스탈린이 경제를 담당하면서 러시아경제를 계획할 당시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들라면 모두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델로즈공장을 들었다. 철강과 석탄이 한쪽 끝에서 들어오고 한 라인에서 백명의 사람이 작업을 하면 다른 쪽으로는 자동차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스탈린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비밀이라 생각했다. 통합과 거대한 공장들. 그리하여 모든 생산물의 77%와 2억 8천만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장에서 일했다. 이것을 사유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설령 사유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한 사람의 자본가에게 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는 그렇게 큰 공장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고 배

왔기 때문에 그 공장문을 닫을 것이다.

한편 모택동 주석은 일본군대로부터 경제를 배웠다. 일본이 이길 것으로 보이던 제2차대전 중반 모택동은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일본이 중국 마을마다 한 사람의 일본군인을 배치한다고 가정하자. 그것은 아직도 중국마을의 절반에는 일본군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이유에서 완전한 분권화와 소규모 산업을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도 역시 비정상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나큰 규모의 비경제이며 모든 마을마다 자전거공장과 소규모의 철공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이런 공장들이 얼마 없으며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준 것이지만 그것들은 러시아공장들에 비하여 규모가 매우 작았다. 즉, 중국은 소규모 산업들로 이루어진 경제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용이한 경제체제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올바른 전략을 세웠다. 왜냐하면 중국은 농업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식품가격이 비었을 때와 비교하면 식품시장이 풍요로울 때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따라서 그들이 처음 5년간 한 일은 중국의 모든 농지를 농부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러시아는 아직 토지개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10년동안 비료가 아니고, 수송수단도 아닌 다만 보다 나은 유인책만으로도 농업생산이 3배로 늘어났다. 따라서 여러분이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해 온 과정에서의 차이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역사학자들이 할 질문은 왜 서유럽은 화교나 한국이 이 지역에서 행한 것과 같은 역할을 동유럽과 구소련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독일인이었으나 그들은 동·서독 통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유럽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돈, 그리고 재능이 남아있지 않았다. 본인은 유럽의 향후 5년이 흥미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독이 이제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10~13%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독일인들은 동유럽과 구소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돈 그리고 재능을 가지게 되었다.

### 질의 구 본호 박사 (한양대학교 교수)

당신은 미국정부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다국화체제를 너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미국, 특히 연방준비은행은 엔화 강세와 달러화 가치하락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느낌이다. 이 사태로 인한 미국인들의 고통은 적은 한편, 이로 인한 일본인들의 고통을 미국인들은 일종의 가학적인 방법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언제 쯤이나 미국과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재무부가 이러한 가학성을 극복할 것인가 우려된다.

### 응답 써로우 교수

아시다시피 미국은 커다란 나라이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여러분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자동차산업분야의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달러화 가치하락과 엔화 강세를 보면서 즐거워 하는 사람들이 의심할 나위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달러화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하면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미묘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부관계자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워싱턴에서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 소련의 미국연구소에 근무하는 아보프토프씨는 소련이 무너지고 있을 때 세계를 다니면서 러시아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을 미국인에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적을 없애고 있으며, 적이 없으면 미국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를 것이다.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보면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은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 전략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전략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클린턴정부는 전략이 없으며 정부자체도 달러화의 가치하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인은 클린턴대통령이 국무장관 임명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는 전형적인 2인자에 불과하다. 1970년대 또는 1980년대라면 아마도 그는 완벽한 국무장관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지배에 있었다는 점이다. 다극화 세계에서는 미국이 무역체제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클린턴이 필요로 하는 인물은 전략가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같은 민주당 사람이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평생 전략적 사고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 훌륭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제는 노련한 집행자라면 전략가를 제2인자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략가들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를 보면 고위층에는 전략가가 단 한사람도 없다. 클린턴행정부는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데, 이는 그들이 감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 **질의** 구본영 박사 (과학기술처 차관)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조그만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 줄 수 있는 충고가 있는가?

### **응답** 씨로우 교수

불확실한 시기에는 보다 여러가지의 조건부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려 노력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도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이것이 이러한 세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 실행토록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어

면 사람이 한국주식시장에 대한 대량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다 파산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 대답은 무엇인가? 본인은 물론 한국 정부도 그 대답을 모를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그 답을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본인은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만약 지금이 진정 달러화 시대의 마지막이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가 흔들린다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콜럼버스가 되어 일본으로 향해할 계획이라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스페인에 앉아서 지도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도의 절반이 미지의 땅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미지의 세계를 지나 친숙한 곳에, 다른 항로를 거쳐 도달할 수 있도록 향해할 것인가? 역사상 드러난 문제점은 콜럼버스는 현명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어리석게도 측량을 잘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지구를 실제 크기의 1/4정도로 생각하였다. 콜럼버스는 배에 실은 물만으로는 일본까지 갈 수 없었다. 만약 미대륙이 거기에 없었다면 그들은 갈증으로 모두 죽었을 것이다. 이제 콜럼버스는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미 대륙이라는 황금덩어리가 일본으로 가는 길목의 1/3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위대한 탐험가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여러분이 현명해야 하지만, 운이 좋은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질의** 이영선 박사 (연세대 교수)

최근 본인은 폴 크루그만교수의 『하찮은 번영』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에서 그는 국가간 경쟁이라는 당신의 개념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 본인이 기억하기에 그는 국가간 경쟁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의 언급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응답 씨로우 교수

많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폴 크루그만교수는 머리가 매우 좋지만 지혜는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국가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의 세계경제에서 살고 있다면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에 경쟁이 없는 것처럼 경쟁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이러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과 여러분이 다른 세금을 납부하고,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다른 교육과 혜택을 받으며, 우리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간 경쟁을 염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미국인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에게는 영향이 없으나 본인에게는 영향을 주는 그 적자의 발생은 본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실제로 국가들이 경쟁하지는 않지만 기업과 개인들이 경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가피한 국가적 요인은 존재한다. 왜 나와 같은 미국 경제학자가 옥스포드 대학교의 경제학자보다 3배의 보수를 받는가? 내가 3배나 훌륭하기 때문일까? 약간 나올지는 모르나 3배는 아니다. 그 대답은 그는 영국에 살고 있고 나는 미국에 살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경이 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한 면에서 폴 크루그만 교수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 질의 사공 일 박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모두들 21세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한다. 당신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뿐이다. 내가 하고싶은 질문은 “왜 당신과 같은 석학이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가?” 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일 당신이 불확실한 변수들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

을 갖는다면, 왜 미래에 대한 일종의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가?

### 응답 씨로우 교수

질문에 대해 두가지로 답하겠다. 한 가지는 현재 중단된 균형과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우리는 다른 쪽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세기 내내 불확실성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인간의 중단된 균형의 예를 들어 보자. 나폴레옹의 군대는 시저의 군대보다 약 2,000년 후에 있었으나 그들은 조금도 빨리 이동하지를 못했다. 두 군대 모두 말과 마차를 이용하는 등 이천년 동안 수송수단은 변하지 않았다. 나폴레옹 이후 증기기관차는 시속 100마일로 달릴 수 있었으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만일 여러분이 19세기 전반을 본다면 그것은 중단된 균형의 시기였으며 혼돈의 시기였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중단된 균형의 시기를 지내온 결과는 사상유래가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을 가장 광범위하게 높였으나 1800년대 초기에는 커다란 불만이 있었다. 비록 나중에는 잘 되었지만, 유럽 전역에는 국민의 군대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기회가 있었다. 당시 어떤 사람은 포유류가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말하는 우월한 인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역사상 가장 좋았던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무역체제를 조직하는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쉬우나 정치적으로는 지독하게 어렵다. 여러분이 세계전체와 협력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늘날에는 미국과 일본이 1960년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총생산과 비교할 때 큰 나라이다. 여러분은 이 두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일과도 협력할 수 있다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120개국과 함께 WTO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이 국가들이 - 나는 이 세 나라를 비난하거나 어느 한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더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발생한다. 세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두 자국을 대



표하여 선출되었다.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 각자는 때때로 자국의 이익을 해치더라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 사람 중 누구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속에 국가를 갖고 있다. 만일 하나의 우월한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부국가 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되며, 그들은 결코 동일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 만약 무엇인가 세 나라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세 나라 모두에게 나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세상에는 정치적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들이 협상을 통하여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 **질의** 조지 랩센슨 대사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씨로우 교수께서는 두 세차례 멕시코 경제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라틴아메리카 대표로서 본인은 이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멕시코와 같은 배를 타고 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본인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그리고 파라과이 사이에 공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미래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고 싶다.

#### **응답** 씨로우 교수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는 이 지역내 국가들이 사상누각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잘 해 오더라도 어떤 일인지 다시 주저앉곤 한다. 일례로 1968~1978년 기간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국가는 브라질이었다. 브라질의 성장률은 일본이나 한국보다 높았으나 다시 주저앉았다. 당신이 나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몇 안되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보다 천연자원의

존적인 경제시대였던 과거 한 때는 일류국가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는 얼마간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 생각한다. 독일, 일본, 미국을 보면 이 세 나라의 10년 평균성장률이 3%이상이었던 기간이 100년이나 된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단거리선수보다는 마라톤선수가 경제라는 시합에서의 승자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경제라는 시합에서 단거리는 잘 달렸으나, 그들은 넘어지고 그 다음 90년간은 달리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따라잡는 데 130년이 걸렸다. 중국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중국 또한 13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러한 일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한국을 예로 들더라도 3, 40년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일본의 1/4정도이다. 그것은 매우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인구밀도가 낮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낫지만 문제는 안정성과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마음이다. 라틴아메리카가 갖지 못하고 있으나 아시아가 갖고 있는 커다란 두 가지는 높은 저축률과 훨씬 우수한 교육제도이다.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만일 여러분이 중국에 가면 평균적으로 브라질보다 훨씬 훌륭하게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